독서 포트폴리오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학번 | 10524 | 성명 | 조나단 |
| 도서명 | Thinking in HTML | 출판사 | Packt Publishing Ltd |
| 저자 | Aravind Shenoy | 과목 또는 영역 | 정보과학 |
| 독서 기간 | 2016 년 9 월 11 일 ~ 2016 년 10 월 2 일 | | |
| 줄거리 | 기본적인 HTML 문법, 문서 객체들과 사용법들로 시작해서 HTML5의 새로운 특징인 섹션 *[시맨틱 구조]* 을 나누는 문법, 사용해햐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다. | | |
| 느낀점 | 웹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으면서 웹의 기초가 되는 HTML의 기본을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가면서 HTML의 기본기를 다시 복습하는 차 HTML의 기본을 다루는 책을 읽어보았다.  디지털 콘텐츠 경진대회에 출품작에서 기획자와 디자이너의 역할을 맡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. 기획자라고 무조건 기획만 하고 디자이너라고 디자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나 디자인 안을 기본적인 HTML로 작성해서 개발자에게 주는 것도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을 새로 알게되었다.  1학기때 HTML수업을 하면서 시맨틱 구조를 짧게 설명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새로운 기술 인만큼 흥미가 생겨서 이 책의 뒷부분에 설명된 섹션 나누기를 주요하게 읽어보았다. 더욱 간결한 코드와 섹션을 나눔으로써 시맨틱 구조를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새로 알게 되었다.  웹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계속 생겨나고 그에 따른 성장도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표준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. | | |
| 교사 확인란 | 2016 년 월 일  교과교사 (인) | | |